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Fax (510) 639-4842

thmschae@yahoo.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106 회의실)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예제33,7-9

[화답송] 시편95(94), 1-2,6-7,11,12,17-19(◎7과8)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어서 와 앞드려 경배 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 2독서] 로마13,8-10

[복음 환호송] 2코린5, 19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복 음] 마태18, 15-20

성가	8시 미사	입당 456	봉헌 221 512	성체 58 152	파견 283
	11시 미사	입당 456	봉헌 221 512	성체 58 152	파견 283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23주일(9월 7일)		성십자가현양축일(9월 14일)		한국순교자대축일(9월 21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안토니오(휘)	이엘리사벳(자영)	이바로로(명국)	권미카엘(창모)	임투카(승원)	전베로니카(진영)
제 1 독서	이바로로(명국)	구미카엘(창희)	강요한(신호)	최다니엘(대연)	최베네딕토(환준)	허라우렌시오(순구)
제 2 독서	정스텔라(애리)	이베로니카(경란)	김안젤라(영선)	이골롬바(정연)	최베네딕다(수영)	김엘플레다(수연)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의 말씀

이야기 하나.

젊은 수사와 원장 신부님이 함께 여행을 다니다 불어난 냇가를 건너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냇가를 건너야 하는 젊은 여인이 차마 건너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장 신부님은 이 여인을 업고 냇가를 건넜고, 여인을 무사히 반대편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수사가 원장 신부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성직자가 여인을 업고 냇가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이에 원장 신부님은 그 수사에게 조용히 훈계했습니다. “수사님, 저는 냇가를 건너고 반대편에 그 자매를 내려놓았는데, 수사님은 아직도 그 자매를 내려놓지 못하셨네요.”

사제로서 고해성사나 면담을 통해서 가장 자주 대면하는 주제가 ‘미움’ 과 ‘용서’ 입니다. 부부간, 가족간(시아머니, 며느리 : 최근에는 장모와 사위 사이의 갈등이 많음),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보편적인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된 미움이 한 개인을 어둠과 불안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일상의 갈등이 심각한 미움과 원한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해’ 와 ‘용서’ 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피해자 편에서 가해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가해자의 뉘우침, 회개가 용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그래야 용서가 허용, 봐주기, 부정이 아닌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용서는 더 큰 화해를 위해서 피해자가 주는 자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마지막 단계는 ‘내려놓음’ 입니다. 상대방이 더는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 분노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용서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페소 4장 32절을 보면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

로 용서하십시오.”

이야기 둘.

작년 안식년을 보내면서 사제 다락방 기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안식년을 통해서 사제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했던 저에게는 그동안 관심도 없었고 생소하게 여겼던 성령쇄신과 더불어 사제 다락방 기도 안에서 만나는 사제들과의 대화에서 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대로 매일 묵주기도를 봉헌하고, TV 시청을 자제하고, 봉헌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다락방 사제들의 숨은 노력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낯설게만 여겼던 신심 활동에서 이제는 사제 생활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신심 활동이 되었으니 이 안에도 분명히 주님의 섭리가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기도회에서 신자들의 기도지향이 바로 사제들을 위해서 봉헌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에서 우리 가운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모여 무엇인가를 청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지니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본당 공동체 전체가 간절한 마음으로 같은 지향을 하늘로 올려드릴 때, 그 기도는 얼마나 더 큰 힘을 지니겠습니까?

정병덕 라파엘 신부
인천교구 부평4동 본당 주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혼자가 좋다? 함께가 좋다!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함께하다 보면 우리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은 죄를 짓고, 그 죄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 입장일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세다면 가서 뒤통수를 딱 치지만, 힘이 약하면 피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뒤통수를 치거나 피한다고 관계가 회복될까요?

사실 화해를 위한 노력은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화해를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조차도 힘들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 힘들어도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거나 혹은 상대방이 핑계나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관계는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지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화해를 위한 단계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단둘이 만나서 얘기하고, 안되면 한 두 사람이 함께 얘기하고, 다시 안 되면 교회에 알리고, 또다시 안 되면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 취급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 취급을 하라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이방인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가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에 반해 대화가 잘 되어 화해를 만들어내면 서로의 관계는 과거보다 더욱 '다져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많은 '갈등'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한 소통이 안 되어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오히려 더 망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한이나 이웃 나라와의 관계, 쌍용자동차, 용산 철거민, 강정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그리고 세월호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부부 사이나 친구,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상처 주지 맙시다. '서로 보듬고, 안아주고, 감싸주면서' 하나가 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을 일방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한 소통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 됨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 된 우리가 함께 청하면 하느님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것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오랜만에 본 가족들과 다투지 말고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지형 신부
일반병원사목위원회
삼성서울병원 원목사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느님께서서는 비뚤어진 손으로도
훌륭한 글씨를 쓰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글_ J. L 베르나르딘 추기경, <평화의 선물>
그림_ 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다마스쿠스와 하일리겐슈타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유다 율법을 열렬히 신봉하였던 바오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가다가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율법에서 사랑으로 극적인 반전을 이룬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도 신앙적으로 회심하여 조금이나마 틀에 박힌 세속적 일상으로부터 반전하고 싶었지만 예외 없이 늘 좌절하였습니다.

성장하여 사회를 보는 눈이 조금씩 뜨이게 되면서, 성공지향적인 한국 사회에서 판박이처럼 얼마나 위선적으로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미사도 일상적인 생활로 전락하여 자극이 없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좌절을 겪으면서 점점 더 위선적이 되어가는 저를 알면 알수록 제가 싫어지기 일쑤였고, 아무 실천도 하지 못한 채 고민만 하면서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날 우연히 아파트 보일러 수리공이 쓴 시집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시인은 서문에서 ‘나는 고민하는 법도 배우지 못하였으나 몸으로 인생을 살았기에 다행이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마음이 뭉클하였습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당신 몸에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다’고 하신 고백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는 가시가 있기에 당신의 약함에서 하느님의 힘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욕망 덩어리인 육체가 바로 가시이고, 가시가 찌를 때마다 제 영혼을 깨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찌르는 고통도 느끼지 못하였던 저는 아직도 마비가 된 채로 있었습니다.

지식은 있어도 마비된 채 살아 제 영혼이 깨어날 리 없었던 것입니다. 마비된 몸, 건성으로 주일미사에 참석하였던 저는 어느 날 ‘미사 음악’을 통해 사도 바오로의 ‘가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감동을 주었던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언어가 아닌 소리, 성음악도 감동으로 영혼에도달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은 세상의 비밀 중의 하나가 음악이라고 하였습니다.

베토벤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은 자신의 음악의 가시성(可視性)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시성’이라고 하였으니 소리가 보이는 것일까요?

분명 사도 바오로는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로 영혼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삶을 살았던 음악가들은 그들의 고통의 가시를 영혼을 깨우는 소리로 바꾸었습니다.

청력을 잃고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자살까지 결심했던 베토벤은 그 고통을 통해 영혼을 깨우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베토벤의 ‘장엄미사’에서는 성악으로 라틴어 가사의 성가를 이끌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듯 하강하는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로 성악을 이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수한 소리(영혼의 울림)가 언어를 넘는 순간입니다. 이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은 청력을 상실한 베토벤이 마음에서 영혼으로부터 내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제 저도 성음악과 함께 사도 바오로께서 회심하신 길을 한 걸음이라도 디져보려고 합니다.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성경산책 마태오 복음서 :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 1,1) 마태오 복음서의 머리말은 복음서에 담긴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복음서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중심 내용으로 하지만, 복음서마다 독특한 점 역시 지니고 있습니다.

마태오 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곧 이스라엘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룹니다. 그렇기에 마태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권위를 가진 율법학자처럼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고(마태 7,29), 율법에 담긴 하느님의 의지를 존중하며(마태 5,17), 당신이 파견된 목적이 이스라엘 집안을 위한 것임을 천명합니다.(마태15,24)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유다교의 전통에 충실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마태오 복음서의 특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데 모아 전한다는 것입니다. 5-7장은 유명한 ‘산상설교’와 함께 시작하는 대목으로 제자들과 군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 놓았습니다.

10장은 제자들의 파견에 앞서 가르치는 대목이며, 13장에서는 비유를 통해 가르치는 예수님을, 그리고 18장에서는 공동체와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23-25장은 재림과 심판을 주제로 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도 마태오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르침에 대한 강조는 복음서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맡겨지는 사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19)

마태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족보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이것은 탄생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별을 쫓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가장 먼저 ‘유다인들

의 임금’께 경배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을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유다인들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죄목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다인들의 거부로 인해 하느님의 구원에 이방인들 역시 참여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교부들은 이러한 마태오 복음의 특징을 왕권을 나타내는 상징인 ‘사자’를 통해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오 복음서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이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성경의 배경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마태오 복음은 우리에게 구약성경을 완성하는 예수님을,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허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라이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9월 7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마리아(정재)	가족
	연	이카타리나(영순)	가족
	연	임아나타시아(리식)	권글라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조상님/부모님	전안드레아/데레사
	생	본당신부님	전데레사
	생	세월호유가족	무명
	생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넷가족
9월 9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이마리아(정재)	정분다
	생	육마이클	육아가다
9월 10일 수	생	백미카엘 가정	사목회
9월 11일 목	연	이마리아(정재)	가족
	생	조레지나(선덕)	조에드몬드
9월 12일 금	생	이요한(세호)/김루시아	채줄리
9월 13일 토	생	주일/한국학교 교사들	사목회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8	221	-	309
헌 금	\$527	\$1,229	-	\$1,756

< 교무금 > \$4,760

양주석(4-8) 정영언(8) 송분학(10-11) 이순자(8)
 황정희(9) 신우현(7-8) 전숙희(9) 한서연(9-12)
 한재구(7-9) 임승원(7-8) 이병열(9) 송인근(5-8)
 김영길(7-8) 조덕행(7-8) 윤순의(8) 부건화(7-8)
 이건용(9) 김영희(9) 신기수(9-10) 박호영(9)
 이성재(7-8) 이순열(7-8) 최용일(7-8)

< 성소후원금 > \$150

송분학(10-11) 전숙희(9) 김승희(5-9) 박호영(9)

< Bishop's Appeal > \$420

박영실(9-12) 김승희(5-12) 조덕행(7-12)
 김원조(1-12)

< 감사헌금 >

김순이 \$200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추석 합동 위령미사 : 9월 7일(오늘) 교중미사

◆ 2차 헌금 안내

9월 7일(오늘) : Diocesan Priest Retirement

9월 14일(다음주) : Holy Father(베드로 성금)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문의 : 510-847-3014

◆ 한국학교 선생님 소개

교감/이순신반 담임 : 정인경 가브리엘라

신사임당 담임 : 이자영 엘리사벳

세종대왕반 담임 : 채운선 이사벨라

특별반 담당 : 이정현 마리크레센시아

음악 담당 : 조창숙 리디아

◆ 오클랜드 성당 창세기 수료자 재교육

일시 :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반

대상 : 창세기 그룹공부를 수료하신 모든 분

강사 : 조마오로 수녀

장소 : 대건회관

준비물 : 성경, 창세기노트, 해설서, 필기도구

문의 및 등록 : 사무실

◆ 북가주 성령대회 강의 CD 및 책 예약 판매(친교실)

강의 CD : \$10(CD 3장)

책 : '천금 말씨' 와 '따봉 프란치스코, 교황의 10가지'

(차동엽 지음) 각 \$20

* 수익금 전액은 본당 발전을 위하여 쓰입니다.

◆ 방효익 신부님 여름특강 CD 신청

강의 CD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이나 친교실에 비치된 신청서에 원하시는 수량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음버전(CD 2장) - \$10

MP3 버전(CD 1장) - \$5

문의 : 영성부장 707-696-7743

◆ 9월 14일(다음주) 8시미사/교중미사 후 9구역에서

미역국을 \$3에 판매합니다.

* 단체 식사 예약도 받습니다.

9월 구역모임 고린도전서 13-14장

1 구역	9월27일(토) 6시	신준 미카엘라 맥
2 구역	9월20일(토) 6시	정일양 안드레아 맥
7-1구역	9월27일(토) 11시	파운더스룸
8-1구역	9월27일(토) 5시	박일신 바실리오 맥
9 구역	9월20일(토) 6시	강길준 도밍고 맥
10 구역	9월20일(토) 5시	이건용 요셉 맥

◆ 대건산악회 9월 특별산행 안내

일시 : 9월 16일(화) 8:00AM 성당 주차장 집합

장소 : Stinson Beach, Mt. Tamalpais Trail

지참물 : 참가비 \$10, 점심, 음료수, 등산장비 각자지참

문의 : 510-847-3014

◆ 성장세미나(북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주제 :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1베드로 4:10)

강사 : 한연홍 다니엘신부 (천주교 수원 교구)

일시 : 10월 17일(금) 오후 4시 - 10월 19일(일) 오후4시

장소 : The Jesuit Retreat Center, Lost Altos

참가비 : \$260

신청 : 각 본당 성령기도회 510-684-7207

◆ 주일학교 등록 안내

개강 : 9월 14일

등록비 : 1인 \$30, 2인 \$50

접수 : 친교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레지나(9/7) : 조선덕, 임계분

한국학교 소식

- 9월 13일 : 교사연수

- 9월 27일 : 교내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대회